

NO.2178

하늘 마음



피터 브뤼겔의 <장님의 우화>



입당송

주님은 내 버팀목 되어 주셨네.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에,
넓은 들로 이끄시어 나를 구하셨네.

제1독서 집회 27,4-7

화답송

-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 ◎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

-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올곧은심을 널리 알리리라. ◎

제2독서 1코린 15,54-58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 ◎ 알렐루야.

복음 루카 6,39-45

영성체송

-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름 찬양하리이다.

준주성법

진리의 길을 따름 ①

그리스도교의 가장 대표적인 고전<준주성법>은

하느님 곁에 항상 머무르며 그 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느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지 아래 말씀에 귀기울여 보세요.
어느새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라지는 형상이나 현란한 이론이 아니라, 진리를 진리 그 자체로 배우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람이 만든 이론과 주장은 우리를 속이기 마련이고, 우리가 보는 것 역시 모든 것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분명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수많은 말로 논증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이론을 몰랐다고 해서 심판 때에 책망을 받을 리는 결코 없습니다. 유익하고 요긴한 것은 소홀히 대하고, 호기심으로 무익한 일에만 마음을 쏟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눈이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2

만물의 종류와 종별을 따지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요한 1,1-4) 누구도 이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바르게 판단하지도 못합니다. 모든 것을 이 말씀 하나로 생각하고, 이 말씀 하나로 향하고, 이 말씀 하나를 통해서만 보는 사람은 마음이 동요하지도 않으며 하느님 안에서 영원히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오, 진리이신 하느님! 영원한 애덕¹⁾으로 저를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저는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것이 싫습니다. 제가 찾고 원하는 것은 모두 당신께 있습니다. 주님 대전에는 모든 학자가 침묵할 것이며 우주의 만물이 잠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만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1) 애덕(愛德): 넓은 의미로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사랑 속에 머무르는 상태를 말하나, 좁게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분을 사랑하는 습관적인 성향(性向)

누구든지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단순하게 할수록 그만큼 힘들이지 않고 많은 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이는 하늘로부터 오는 총명의 빛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일이 많아도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는데, 이는 모든 것을 하느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행할 뿐, 자신을 위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절제되지 않는 욕망보다 여러분을 방해하고 성가시게 구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착하고 신심이 깊은 사람은 겉으로 행할 일을 마음속으로 먼저 계산합니다.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으로 기울어지려는 욕망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른 이성의 명령을 따릅니다. 자신을 이기려고 하는 싸움보다 더 맹렬한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용감하게 극복하고, 선(善)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 글은 《준주성범》(©윤을수 옮김, 가톨릭출판사, 1955, 2021)에서 발췌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생각해보기

1.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큰 진리로 와닿았던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2. 내 마음에 자리잡은 가장 큰 욕망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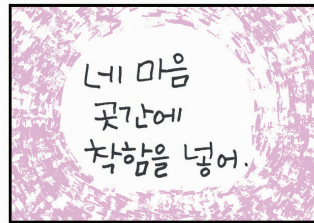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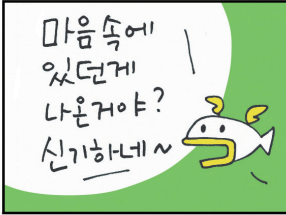
욕망을 버리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할까요?



날으는 C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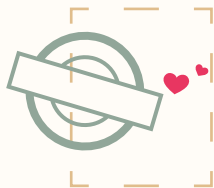
염현아 안젤라 | zzz-h@hanmail.net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마태 5,8)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달 동안 잘 지냈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총을 많이 받고 누리길 바랍니다.

저는 ‘서울아지트’라는 곳에서 버스를 몰며 힘겨운 청소년기를 보내는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렇게 지낸 지도 벌써 6년이 되었는데, 그 시간 동안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은 똑똑한 아이들을 더 지혜롭고 슬기롭게 만들죠.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지지와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안정적으로 펼치게 돼요. 이처럼 ‘사랑의 힘’은 함께하는 힘을 주고, 그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도 인내하며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랑, 올바른 언행 등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다른 이들과 다툼없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정착할 힘이 생기죠.



종종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갖는 사랑의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한 친구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신부님, 저희 부모님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저는 용서 안 해요!”**라고 생각할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관계가 회복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나의 변화’**예요. 나부터 먼저 내려놓고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시작할 수가 없죠.

내가 먼저 용서함으로써 나 자신은 온전히 깨끗해지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언행들로부터 시작된 사슬이 끊겨서 자유로워져요. 제가 만난 아지트 친구들을 통해 배운 거예요. 아지트에 오는 친구들은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고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는 친구들이 열이면 열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성당을 다니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죠. “너도 온갖 방법을 써도 안되니, 우리 예수님 믿지 않니? 한번 예수님께 가보자.”라고요. 어떤 친구는 비웃고 무시했지만, 어떤 친구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인 친구들은 놀랍게도 변화되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과거의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했으며, 그동안 냉담했던 어머니를 다시 교회로 인도했죠. 그리고 그 어머니 역시 지금은 회개의 삶을 살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다른 한 친구는 부모님의 차별과 학대, 형제의 무관심으로 인해 결국 도움을 받아 나와서 살게 되었어요. 이 친구 역시 자존감의 회복을 위해 정신의학과 약에만 의존했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읽고 기도드리면서 예수님을 꼭 붙드는 법을 배웠어요. 어느 날 그러더군요. “**신부님, 저는 원래 자면서 꿈도 안 꾸고 뭔가 헛것을 안 보는데요. 기도 중에 예수님 같은 분이 아기인 저를 안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환시를 보는 경험이 처음이에요.**” 하며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했죠. 그러면서 이 친구는 서서히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로 묶인 사슬에서 자유로워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동시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힘을 지니신 그분 말씀을 믿으면서 가족으로 인해 상처로 얼룩진 마음과 그 상처에서 나오는 분노, 미움, 두려움, 자존감 낮음이 함께 씻어지니 점점 빛이 들어오면서 하느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마음이 안정되니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지내면서 아르바이트도 꾸준히 잘하고 있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마태 5, 8)

우리 친구들도 마음의 행복을 누리고 싶나요? 그렇다면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누군가를 먼저 용서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질 거고,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용서하고 회개하는 건 매일 세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즉, 예수님을 안다면 용서와 회개는 당연하며, 이를 통해 깨끗하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된답니다.

이번 한 주 나를 내려놓고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 보세요. 예수님이 꼭 친구를 만나주실 거예요!

복음자리

2025년 3월 2일 | 연중 제8주일
(루카 6,39-45)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루카 6, 45)

새겨보기

이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제자들과 군중을 향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동체 내에서의 책임, 겸손 그리고 내면의 성찰을 강조하며 여러 비유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찰을 통해 선한 마음을 가꾸는 것이 곧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책임감과 진정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단체나 세상 속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이루고 싶은 열매가 있나요?**

 **STEP 1.** 오늘 복음 내용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STEP 2.** 내 삶을 오늘 복음에 비추어 생활 속 이야기를 써보아요.

 **STEP 3.** 주님께 바치는 나의 기도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적어보아요.